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호 【루게 제25167호】주제105(2016)년 1월 24일(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으로 대고조진군의 승전포성을 힘있게 울리자

주체조선의 수호관목으로 장대한 서막이 열린 올해의 투쟁의 전면에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서있다. 당장전 70일을 빛나게 장식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상원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로동계급이 생산적업무를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조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신로동계 제1비서의 영의로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었다. 여기에는 오늘 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혁명을 보위하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한 노력적성품을 마련함으로써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다시한번 날카롭게 펼쳐나갈것을 바라는 절실한 기대와 기대가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 이것은 상원의 로동계급이 아닌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이 받아안은 최상의 믿음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조신로동계급의 스스로 사명감을 백배해주는 비약의 원동력이다.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적업무를 필승의 무기로 들어맞고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실을 앞장서서 만드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신성한 의무이고 혁명적본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적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들맡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서서 받들며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주켜들고나가야 합니다.》

도 발전속도 같이하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나는 역센 기풍이 우리 로동계급이며 자강적업무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국산화, 현대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는 강성민명의 영웅한 개척자, 척후병도 우리 로동계급이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보다 수만대의 세멘트를 증산하여 당의 대전설구상을 실현으로 받은 상원로동계급의 자랑한 성과는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결을 가지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풍의 뚜렷한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으로 빛나는 조신로동계급의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온 나라에 더 높이 떨치려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역적본분의 일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걸출한 수령, 주체의 영원한 태양,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다. 인류역사에는 우리 수령님들처럼 탁월한 위인적품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시오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름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들은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온 세계가 우러르고 끝없이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으로 빛나는 주체혁명적 핵심부대로 내세워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더없는 특권이고 최대의 영광이다.

세상에 로동계급이 태어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존엄으로 불리우는 가장 존엄높은 로동계급은 오직 조신로동계급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정을 합쳐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존엄과 더불어 로동계급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준 우리 당의 업적은 주체의 강성국가 건설사에 불멸의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넓과 기상, 투쟁과 전진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절대적권위와 직결되어있다. 세멘트 생산에서의 비약적혁신이자 수령의 유호판결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래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최고영예를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올해 총진군경의 자랑한 성과를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물결을 가지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풍의 뚜렷한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으로 빛나는 조신로동계급의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온 나라에 더 높이 떨치려는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역적본분의 일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걸출한 수령, 주체의 영원한 태양,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다. 인류역사에는 우리 수령님들처럼 탁월한 위인적품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시오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름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들은 있어본적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온 세계가 우러르고 끝없이 칭송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엄으로 빛나는 주체혁명적 핵심부대로 내세워주시었다.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더없는 특권이고 최대의 영광이다.

세상에 로동계급이 태어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존엄으로 불리우는 가장 존엄높은 로동계급은 오직 조신로동계급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정을 합쳐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존엄과 더불어 로동계급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준 우리 당의 업적은 주체의 강성국가 건설사에 불멸의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넓과 기상, 투쟁과 전진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요한 세멘트를 더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전투명령을 전후 1만의 강제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꺾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결사전, 백열전을 벌려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단가등의 동음을 울린 소성로의 거대한 불길은 버를 깔고 피를 바쳐서라도 당의 대전설구상을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과로 발전시키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지펴올린 애국충정의 불길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려는것은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의 정의의 위업, 우리의 힘찬 전진을 필사적으로 가르막으려는 미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남이 갈수록 가증되고있다. 파업이 방대하고 난관이 막아설수록 상원로동계급처럼 맞받아나가는 공격기상으로 최고의 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가는 혁명을 보위하고 올해 총진군경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우리 로동계급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는 당중앙위, 혁명부위의 성세요구하엔 전기기관차로 자동차로 트랙도르도 제힘으로 기어이 만들어 당의 결정지시를 끝까지 관철한 자력자강의 정신, 허리를 졸라대면서도 전기기와 기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리현과 나라의 국방방위대의 토대를 역적같이 다진 투쟁한 희생정신이 위대한 강성시대에 더욱 뜻깊이 이어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수령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다.

오늘 우리 당은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무한대인 정신력을 굳게 믿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로동계급이 전대대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창조본래를 그대로 지닌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자기 부름, 자기 단위, 자기 초소에서 전진해나가는 로동계급을 이룩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서서 실현으로 받들어나가기 할 때이다.

상원로동계급은 당장전 70일을 빛내며 진행되는 중요대건설에 필

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생산적업무를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는것이 상원로동계급이 보여준 철의 진리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백두정령에 나배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총진군의 앞장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전격히 반동하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지펴올린 애국충정의 불길이다.

상원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도 기업소자체의 질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훌륭히 완성하고 세멘트 생산에 걸림이 필요한 원료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종전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기 힘을 안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최고생산년도수준과로 투쟁이 확충한 여기에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본래가 있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길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혁명의 제일대로 간직하고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꼭 지켜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상원로동계급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혁명의 제일대로 간직하고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꼭 지켜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상원로동계급은 당장전 70일을 빛내며 진행되는 중요대건설에 필

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생산적업무를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는것이 상원로동계급이 보여준 철의 진리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백두정령에 나배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총진군의 앞장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전격히 반동하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지펴올린 애국충정의 불길이다.

상원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도 기업소자체의 질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훌륭히 완성하고 세멘트 생산에 걸림이 필요한 원료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종전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기 힘을 안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최고생산년도수준과로 투쟁이 확충한 여기에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본래가 있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길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혁명의 제일대로 간직하고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꼭 지켜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상원로동계급은 당장전 70일을 빛내며 진행되는 중요대건설에 필

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생산적업무를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는것이 상원로동계급이 보여준 철의 진리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백두정령에 나배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총진군의 앞장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전격히 반동하는 상원로동계급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지펴올린 애국충정의 불길이다.

상원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도 기업소자체의 질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훌륭히 완성하고 세멘트 생산에 걸림이 필요한 원료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종전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기 힘을 안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최고생산년도수준과로 투쟁이 확충한 여기에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본래가 있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길만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혁명의 제일대로 간직하고 상원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꼭 지켜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상원로동계급은 당장전 70일을 빛내며 진행되는 중요대건설에 필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충정의 한마음인 기계공업성 산하단위 연구사 리일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순결한 맘을 바치면서 조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선구보물로 꾸리는 전투에 참가하여 적극 헌신하고있다.

문수기능회복원 신하단위 부원 리미향은 남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절친한 그리움을 안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들과 전구한 꽃

뿌리, 꽃씨 등을 성의껏 지원하였다. 수령영생위원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보통강구역 정흥초급중학교 교원 리명심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게 모시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경상유치원 교양원 오성혜는 만수대혁명사적지와 당장간사적관을 정성껏 관리하는 사업에 헌신하면서 조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 충정을 바쳐가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중구역 창평동 3인민반 박동은 오랜 기간 하루와 같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오신 절세위인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실장 배동혁은 우리 당의 혁명정신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일념으로 당창건사적관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쳤다.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열의밑에 조선4.26남원화화합군 로동자 배은하는 정성다해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적극 고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문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현세에 높이 우러러 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892호

주체105(2016)년 1월 6일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과 련관단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김일성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칭호,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성스러운 백두산전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신근시대의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거연히 일떠선것은 젊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일대 사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사상, 미래사상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로고로 뜨겁게 이어있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켜주시었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미더운 백두정준들과 건설자들은 엄중한 자연과의 대격전, 닦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시대를 전진하는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책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맘을 지니고 백두대지에 피를 흘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며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과 련관단위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김일성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김일성훈장 1명	박찬영
로력영웅칭호 36명	리향준, 김남철, 김상민, 홍광일, 한희룡, 박필수, 김상봉, 김남철, 리명철, 박인호, 광광성, 박정금, 백두찬, 박원길, 허성환, 정용환, 박남철, 김철수, 리찬주, 홍일혁, 김철룡, 김명철, 류영진, 정성필, 윤남, 허봉남, 김준천, 전순철, 한명준, 심의환, 리용관, 김경선, 김성준, 원희철, 권봉진

김일성청년영예상 43명	공훈건설자칭호 4명	국기훈장 제2급 1 169명
김정일청년영예상 42명	공훈자동자훈장칭호 5명	국기훈장 제3급 2 607명
공훈설계기칭호 3명	국기훈장 제1급 169명	공공메달 6명
공훈과학자칭호 1명	로력훈장 76명	공로메달 3 285명
		계 7 447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 제900호 개성시에 모범체육시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우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육선수후비양성과 대중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개성시에 모범체육시청호를 수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우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육선수후비양성과 대중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개성시에 모범체육시청호를 수여한다.



















